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시각예술이 남긴 탄소발자국

올라퍼 엘리야슨의 작품 '얼음 시계'는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글에서 자주 언급된다.

이 작품을 비판했다. 이 글에서는 '얼음 시계'를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해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작품을 운송해 이곳저곳에서 전시하는 일은 근대 이후에 생겼다.

해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작품을 운송해 이곳저곳에서 전시하는 일은 근대 이후에 생겼다.

사설

코로나19 재확산, 관광업에 찬물 끼었다

제주지역 코로나19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진정국면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이달 들어 네자릿수를 돌파했다.

게 이달 들어 8524명이 나왔다. 지난 6월 한달간 발생한 확진자에 비해 보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열린마당

폭염 속 안전한 여름나기



임성현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논밭에서 발생했고, 이 중 50.7%는 낮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 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in

"갈등 사안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달라"

오 지사 갈등관리 홍보

미리 겨울 준비 연탄 쿠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제주도청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 이번 주 주간 조정 기조를 '갈등관리'로 설정하고 각 실국에서 소관 갈등 사항을 확인한 뒤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해 눈길.

○...제주시가 가정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해 미리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연탄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

농어업 기후변화 피해, 총체적 대응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지구촌의 문제이자 제주 농어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먹거리를 책임진 농어업에 닥친 기후변화 위기는 갈수록 심해 행정 농어민 모두 실질적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점을 중시, 최근 과종과 비닐피복재자 제주 농어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먹거리를 책임진 농어업에 닥친 기후변화 위기는 갈수록 심해 행정 농어민 모두 실질적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재식 (제주어류양식수협 본부장) 아버지 광산김공 은수(향년 78세)께서 서기 2022년 7월 18일 12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4~5년생 원터프린스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하례조생 미니향 레몬